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1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2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 3 존귀영광 모든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멀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 담당

11/11(화)	11/12(수)	11/13(목)	11/14(금)	11/15(토)	11/17(월)
김민수2 안수집사	방명용 안수집사	정재환 재적안수집사	허 옥 안수집사	김진수2 안수집사	김근홍 안수집사

2025년 11월 15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진영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30장 다 같 이
기 도 김진수2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28장 1-5절 인 도 자
찬 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새 벽 찬 양 대
설 교 『거룩한 옷을 입으라 』..... 이진영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8:1-5>

-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11월 15일(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되돌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맡은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를 은혜로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 힘이 되어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